

서점 매장이 넓어지고 있다

교보·乙支매장 확장...강남에 '서울문고' 개점

서점의 매장공간이 넓어지고 있다. 기존 대형서점인 교보문고와 을지서적이 매장을 대폭 확장했는가 하면, 강남 삼성동 무역회관 지하에 300평짜리 대형서점이 새로 문을 열었다. 오는 가을에는 또 롯데월드와 천호동에 각각 200평짜리 대형서점이 문을 열 예정. 외곽지대인 부도심권에 대형서점이 속속 들어서고 또 지방에까지 파급되는 현상은 독자에게나 출판계에 있어서나 다같이 반가운 일이다.

매장 1,500평...책架길이만 27킬로

○...교보문고는 늘 드나드는 사람들마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매장이 넓어지고 있다. 9월 현재 매장 총넓이는 실평수로 1516.29평. 가히 단일매장으로는 세계 최대로 꼽힌다.

교보문고는 81년 5월1일 매장 실평수 680평(임대면적 1,000평)으로 출발, 그동안 단계적으로 매장을 넓혀왔다. 83년 7월 기존 상점가를 정리하고 제2매장(인문·사회과학도서) 150평을 신설한데 이어 85년 9월에는 종전의 카페테리아를 폐쇄, 제3매장(학습참고서·외국어학습도서) 250평을 증설했다.

이런 매장확장은 올들어 더욱 박차가 가해졌다. 지난 2월에는 구내의 전문상가를 뒤쪽으로 물리고 제5매장(예술·실용서·구정가도서) 205평을 증설하는 한편 5월에는 학생실용품 코너와 컴퓨터 코너를 신설했고, 8월에는 제2, 3매장을 둘러싼 유리벽을 철거, 개방화함으로써 다시 100평 이상이 확장되는 효과를 얻었다. 결국 올들어서만도 실평수 500평 안팎이 늘어난 것이다.

○...교보문고는 올림픽에 때맞추어 영문판 안내책자를 발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서가의 총길이만도 26.76Km에 이르고, 국내도서 8만9천종에 92만권, 외국도서 5만2천종에 23만권, 도합 11만1천종 115만권의 도서를 상비하고 있다.

하루 이용객은 평일에 3~4만명, 주말이면 4~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업원수는 420명. 언뜻 보면 過體重인 듯한 느낌이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매상을 올려 서점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요즘에도 하루 평균 5천~7천만원대의 매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책으로 환산해서 1일 평균 2만권 이상이 팔린다는 계산이다.

을지서적, 학생고객 유치에 총력전

○...을지로 입구 동북쪽 모퉁이, 내외빌딩 지하 내외플라자에 자리잡고 있는 을지서적(대표 방용남)은 개점 1년6개월째를 지난 9월 5일, 매장을 종전 300평에서 1천평(임대평수)으로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都心의 명소'로 등장했다.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도서수용량도 훨씬 늘어났고, 통로 등 여유공간이 많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일신했다.

을지서적은 지정학적으로 명동과 을지로 오피스街와 이웃해 있어, 직장인과 일반인이 주고객층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역시 도서관의 주력층은 중·고·대학생임에 비추어, 이번 매장확장과 함께 학생층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태세.

그래서 요즘엔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몇몇 일간지와 기독교 주간지 등에 전면광고를 실었는가 하면, 시내 12개 대학 신문에도 전 5단 광고를 실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부심하고 있고, 또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 역과 지하통로로 직접 연결되는 잇점을 감안해 2호선 연변의 인구밀집 지역이나 대학이 소재하는 지하철역 요소에 선전간판을 내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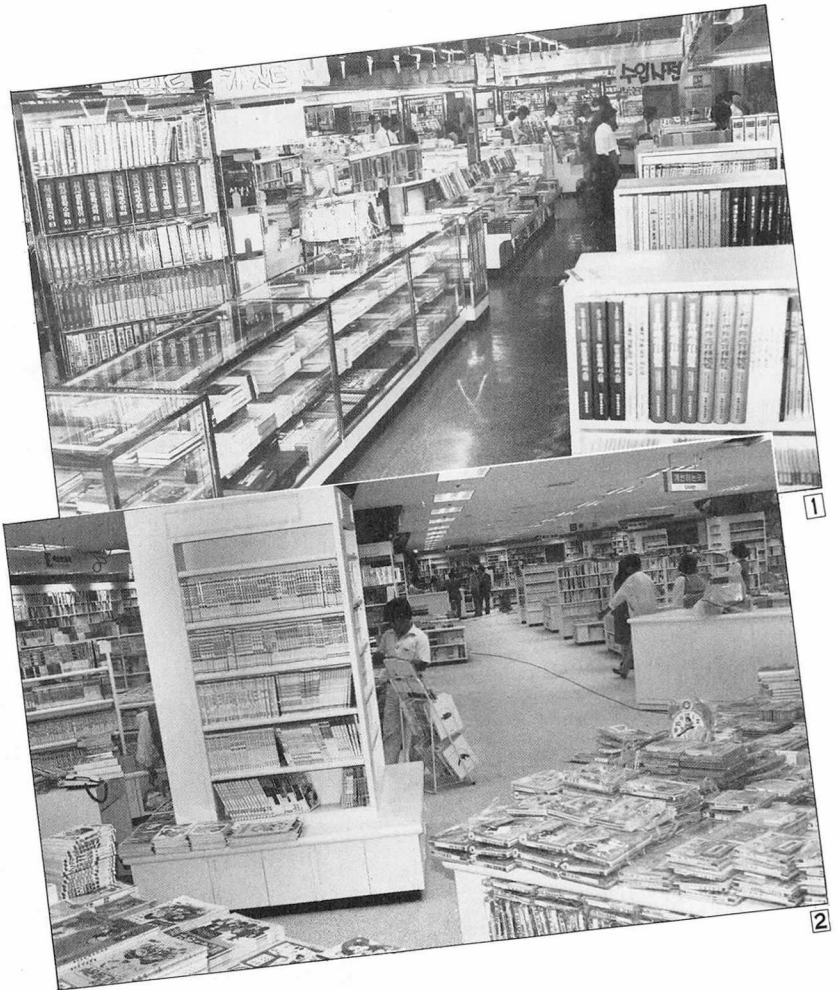
한편 책갈피 15만매를 제작, 인근 학생들에게 널리 배포했고, 근간 MBC-FM '밤의 디스크 쇼' 프로(밤 10시)에도 젊은이를 겨냥해 CM을 내보낼 계획이다. 이런 일련의 홍보작전에 힘입은 때문인지 "확장후 고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이 관인수 영업이사 말이다.

현재 종업원은 60명. 근간 20명을 공채로 증원할 계획이다. 확장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당분간 감면한다는 건물주측의 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하루 평균 1,000만원 정도의 매상을 올려야 손익분기점에 이른다는 계산이어서 매장확장의 '성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업시간은 아침 9시반에서 밤 9시까지. 첫째·세째 일요일은 쉰다. 앞으로는 각종 강좌와 전시회도 유치하고, 작가 등 유명인사의 초청 사인판매도 시도할 계획이다. (전화 757-8991~5)

무역회관 지하 아케이드에 300평 개설

○...또 하나의 대형서점 '서울문고'(대표



[1] 종전 300평에서 1,000평으로 확장한 을지서적. 매장이 넓어짐에 따라 책의 수용량도 크게 늘어났다. 요즘은 학생층 고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태세. [2] 강남 삼성동 무역회관 지하 상가에 새로 문을 연 서울문고.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지하로 연결되어 전망이 밝다.

이종철)가 9월16일, 강남에 새로 지어진 무역회관 지하 아케이드에 문을 열었다. 매장 넓이는 실평수 300평(임대평수 480평), 여기다 60평 넓이의 문방구점이 딸려 있다.

서울문고는 주식회사 형태로, 서울대 법대와 상대 동기동창생들인 변호사·실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개설했다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대표 이종철씨는 35년간 은행계에 몸담았던 '자금운용'의 베테랑으로 알려졌는데, 전문경영인으로 초빙됐다고.

입지적 조건이 조금 외진 느낌이지만 지하철 2호선의 삼성역과 직접 연결되었을 뿐더러, 무역회관에 이웃한 인터콘티넨탈 호텔 지하 상가와 새로 개점한 현대백화점과도 지하로 직접 연결되어 있어 전망을 밝게 한다.

종업원은 50여명. 하루 매상 400~500만원이 손익분기점이어서 이곳이 널리 알려지기까지 당분간은 출혈을 무릅쓰리라는 얘기가. 주변에 생맥주집·햄버거집·치킨집 등과

함께 젊은이들을 위한 위락시설이 갖춰져 있어, 서울문고의 뿌리내리기는 시간문제일 듯. 아물든 이 일대가 멀지 않아 새로운 부도심권으로 각광을 받게 될 전망이어서 낙관해도 좋으리라는 중론이다. (전화 566-2887, 7748)

○...이밖에도 순매장 넓이 150평 규모의 '敎民문고'(대표 전재영)가 오는 10월 중순께 강동구 천호동에 문을 열 계획으로 한창 내부설비를 서두르고 있다. 천호대교 건너 네거리 부근, 유니버시티백화점과 이웃한 삼형빌딩 1~2층에 자리잡을 교민문고는 문화시설면에서 낙후된 강동지역의 문화광장으로 구실체 구실을 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전화 488-2151)

한편 최근에 오픈한 '롯데 월드' 지하 아케이드에도 오는 10월 중순께 200평 규모의 대형서점이 들어서리라는 소식이다.

이래저래 서울의 '문화지도'가 채색을 달리 해야 할 날이 임박했다는 느낌이다.